



환경정책의 우선순위, 환경오염 배출저감에 둔다

- 새로운 산업환경 정책 방향 제시 -

산업자원부 제공

□ 생산단계에서 환경오염 배출을 근원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 '청정생산 추진계획'이 마련된다.

-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7월 16일(화) 12:00시 플라자호텔(난초홀)에서 개최된 [산업경쟁력전략회의]에서
- "산업화시대에는 산업 발전을 위해 환경을 희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상생(Win-Win) 전략이 필요"하다고 지적하면서
- "우리업체가 각국의 환경 기준을 맞추는 수동적(Reactive) 자세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기술개발, 청정생산기법 확산 등 선제적(Proactive)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것"이라고 밝혔다.

□ 이날 회의에서는 '청정 생산 추진계획'과 함께 '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산업계 대응방안', '지역 산업 진흥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과제'에 대한 산·학·연 전문가 토의가 이루어 졌다

- 산업자원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중 착수할 예정이다

□ 주요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① 산업환경정책 추진 전략(국가청정센터 전문위원 박영우 박사)

◇ 기본방향

- 산업부문 청정생산효율성(Eco-Efficiency)을 '99년 기준으로 2005년까지 2배, 2010년까지 4배 달성



-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우리나라는 '90년대비 '99년 GDP는 66% 성장하였으나,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27% 감축하여 EE는 2.27배 증가

※ 청정생산효율성(Eco-Efficiency) = GDP / 오염물질배출량

○ 산업계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환경부하를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선도적 역할 수행

◇ 주요추진 과제

○ 생산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저감시키는 청정생산(Cleaner Production)방법의 적극 개발·보급

- 주요 업종별 핵심 기술개발 과제를 정부와 기업이 공동 개발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

< 주요 업종별 핵심 청정기술개발 과제 >

구분	환경적 특성	기술개발 과제
자동차	○EU의 배기가스 규제 강화(2005) ○폐차 재활용 의무 부담	○저공해, 저연비 원동기 기술 ○친환경 고내구성 고분자 부품 기술 ○재활용 고무를 사용한 타이어 제조기술
전자	○EU의 납 사용 규제(2007) ○사용, 폐기단계에서 환경부하가 높음	○납, 할로젠을 사용하지 않은 부품 개발 ○전과정 평가 기술 개발
철강	○에너지 다소비형산업 ○질소 함유 폐수 규제 강화	○전기로 고정정 조업 기술 ○폐수중 질소 제거 기술 개발
석유화학	○다단계공정에 따른 다양한 오염물 발생 ○제품설계 및 제조공정 등 복합 규제	○고순도의 페놀 분리 정제기술 개발 ○PVC 환경친화적 공정 제어기술 ○일산화탄소와 메탄올을 이용한 제조기술
섬유/염색	○선진국에서 제품공정까지 고려한 에코라벨 부착의무화 ○생산단계중 염색분야 환경부하가 높음	○저공해형 초극세 섬유 염색 ○회수 재이용이 가능한 염색제 ○수용성 수지 및 코팅 기술

- 지역별 산업 여건에 맞는 청정생산 기술의 이전·확산을 위하여 「지역청정생산 보급센터」를 지정(2003년 2개 센터 시범 지정)하여, 청정생산기술의 종합지원센터로 운영



-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하나 국내 기술수준, 산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과도한 규제는 속도조절 필요
 - 신규 규제 도입시 기존규제에 대한 평가 및 신규과제의 '비용효과분석'후 이를 국민에 알려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도입
 - ※ 신규규제도입시 기존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조치를 위해 일정 기간동안 적용을 유예하고 신설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
 - 국내 산업계의 사전대응을 위하여 기술수준, 업계의 투자능력 등을 감안하여 환경규제사전예고제(5~10년) 도입
 - 사전·사후규제 등 중복규제는 단순화하고, 직접적 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를 통한 자발적 시스템으로 전환
 - ※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·신고제 보다 배출허용부과금 제도 등을 통한 경제적 제도로 운영
- 전경련,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자원에 대한 수요를 1/2로 줄이고 생산성을 2배로 늘이는 "Factor 4" 운동 전개
- 신규 산업공단 조성시 공단내 발생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폐기물 무배출(Zero-Emission)을 지향하는 EIP(Eco-Industrial Park) 도입
 - ※ 미국,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한후 2개 공단에 시범적용('03년 산단공과 국가청정센터 공동 사업으로 추진)

②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력방안
(에너지관리공단 노종환 기후변화협약대책단장)

◇ 기본방향

- 기후변화협약 감축의무 협상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 추진
 - 온실가스 저배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촉진
 - ※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중 산업 부분에서 67.7%를 배출

◇ 주요추진 과제

-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하고, 산업별 온실가스배출감축 잠재량



도출

-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
-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시장기능에 기반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유도
 - 금년 하반기부터 배출권거래제 모의 시범사업 추진
 - 2004년부터 온실가스다배출 및 에너지다소비 업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거래 시범사업 추진
 - ※ 영국은 2002년부터, EU는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
-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체계적으로 등록·검증·인증하기 위한 온실가스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계의 자발적 노력 촉진
 - 산업계의 조기감축노력(early action)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

③ 지역산업 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과제

(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장 김인중 박사)

◇ 기본방향

-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역혁신체제 (RIS : Regional Innovation System)」에 기반을 둔 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신산업 창출

◇ 주요추진 과제

- 국내에서 지역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CEO가 부족하므로 이를 외국에서 유치하거나 양성에 주력
- 산자부와 타부처의 지역지원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대한 협의·조정 장치 마련
 - 이를 위해 산자부의 "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"과 관계부처의 지역산업계획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산자부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
- 사업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기예산을 차등지원함으로써, 사업 시행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
- 수도권에 대한 경직적인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낙후지역으로 기업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개발 보조금 제도 신설



산업경쟁력 전략회의 개요(산업환경·입지)

□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02년 7월 16(화), 오찬 (12:00~13:30)
- 장 소 : 플라자 호텔 4층 난초홀
- 참석자(33명)
 - 산업자원부 : 장관님, 차관보, 산업정책국장, 자원정책과장, 산업입지환경과장 등 5명
 - 산·학·연 :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 등 28명

□ 회의 일정

시 간	내 용	비 고
12:00~12:05(5분)	장관 인사말씀	
12:05~12:25(15분)	참석자 인사 및 오찬	
12:05~12:35(30분)	<주제 발표> - 산업환경정책 추진방향 -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력방안 - 지역산업진흥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과제	박영우박사(청정센터) 노중환단장(에관공) 김인중 박사(KIET)
12:35~13:25(50분)	주제별 토의	
13:25~13:30(5분)	장관님 맺음말씀	